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 12 ~ 2020. 1. 25 제218호



▶ 모리타니 광야

제공: WMM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던 주님의 발자국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건져내신다. 그리고 이곳, 광야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이에 대해 시편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한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모래 위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에서 터벅터벅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의 여정이 보이는 듯하다. 어느새 구원의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린다. '뒤를 돌아봐!'

홀로 애쓰며 걸었던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길 위에 우리의 지친 발자국과 함께 걷고 계셨던 주님의 강인한 발자국이 선명히 보인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GNPNEWS]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시편 78:52)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한동협, 총신대 동성애 비판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 즉각 취소 촉구

이사회에 비 기독교인이 대부분, 신학적 이해 없어

비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동성애를 비판한 총신대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한데 대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공동대표 김종준 류정호 신수인 목사)가 지난 31일 비판성명을 냈다.

교계의 대표적인 반동성애 단체인 한동협이 총신대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은 학내 사태 이후 파송된 관선 이사 대부분이 비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수업 중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동협은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최근 창조 질서에 반하며 보건·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남성 간 성관계를 경고한 이 교수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것은 관선 재단이사회가 대부분 총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이어 “총신대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비판을 견지해 온 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이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협은 “재단이사들이 만약 총신대의 동성애 반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 온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NPNEWS]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엉덩이를 찼나이다(시편 119:85)
기도 |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비 기독교인 재단이사들의 주장을 무너뜨려주시고, 기독교사학답게 주의 법을 따르는 총신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2)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앎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實際)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원래부터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그분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복음이 실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길과 진리, 생명이 아

나라면 실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다면 그 믿는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동의는 하는데...’ 이런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모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는 원리와 예배당 밖에서 사는 원리가 다른가요? 내가 믿는다는 교리가 실제 내 삶을 움직이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다가 마



일러스트=김경선

지막 날 믿음의 부도(不渡)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실제 되지 않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일은 왜 벌어지나요? 그 지식이 나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

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가 내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2017, 규장 김용의)〉

*** 복음의소리 316전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과 복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읽다
들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복음과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인도서, 복음 전파 이유로 교회와 성경 방화



▶ 토속신앙인들이 지난 12월 1일 불태운 인도 오디샤주 페리가온 마을의 교회 건물(출처: morningstarnews.org 캡처)

인도에서 한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도끼로 위협하고 기독교인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인도 오디샤주의 라야가다 지방 페리가온 마을에서 조상, 영혼, 자연을 바탕으로 신을 숭배하는 토속신앙인들이 성경을 몰수해 불태운 후 5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기독교인들의 집을 급습해 공격했다.

비부단 프라단 목사는 “12월 1일 기도모임과 지역 점심 제공을 마친 뒤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5명 가량의 부족장들이 도끼를 들고 와 교회를 포위하고 우리

를 조각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우리를 마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4시간 넘게 인질로 잡아두었고, 야디바시 부족의 작은 마을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에 대해 이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저속한 언어로 우리를 학대했고, 그들의 신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킬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결국 침입자들은 예배를 중단시키고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한 뒤 풀어줬다.”고 말했다.

그들은 프라단 목사를 풀어 준 그날 밤 진흙과 대나무로 만든 교회 구조물에 불을 질렀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술 취한 사람들은 기

독교인 가족들을 추잡한 언어로 학대하고 그들의 집을 강제로 수색해 성경을 찾아 불을 붙였다.

프라단 목사는 “부족인들은 나 때문에 그 마을이 부유한 문화와 가치를 잃었고, 내가 외국 신앙을 도입했으며, 그 마을에 나의 존재와 기독교의 기도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또한 마을에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프라단 목사와 교회 장로들은 두 차례 공격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이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서류를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잠시 감금한 뒤 석방시켰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오디샤의 인구 410만 명 중 힌두교 93.6%, 기독교 2.77%, 이슬람 교도 2.17%이다. 또, 오피드어선교회 발표한 2019년 기독교박해순위에 따르면 인도는 10위를 기록했다.

기독교 박해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선된 이후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RSS의 정치적 세력인 BJP당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전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NPNEWS]

미, 학교에서 찬송곡 연주 금지 이후 다시 허용

미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에게 찬송가 연주를 금지했다가 다시 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8학년 생인 부르클린 벤젤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2월에 연주할 피아노 과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Joy to the World)’라는 찬송가 곡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찬송곡의 가사에 ‘구세주, 천국’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거절했다.

이에 부르클린은 가사가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에 ‘구세주, 천국’ 같은 단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부르클린의 엄마 줄리언은 딸의 연주곡이 거부당했다는 이



▶ 부르클린 벤젤(출처: revelationtv.com 캡처)

일을 받고 나서 기독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교측은 법률사무소가 학교에 연락한지 몇 시간도 안 돼 찬송가 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차터스쿨은 수정헌법 제1조, 학생의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꾸준히 법과 헌장에 따라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법률사무소는 “최근 들어 여차별 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사건들이 재심에서 승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기독교인들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철신모, 15기 청소년복음캠프 훈련생 모집

다음세대를 위한 철장 든 신부들의 모임(철신모)이 주관하는 15기 청소년복음캠프가 2020년 2월 17일(월)~21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예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

학교 3학년(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월)~2020년 1월 28일(화)까지,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 접수 기간 동일. 장소는 추후 공지. 문의 ☎ 010-5444-7386, 010-9448-0624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30~1.4)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 예배 중 총격사건... “아버지 죽인 자를 용서한다”

미국 텍사스의 웨스트 프리웨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예배 성찬식을 위해 봉사 중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딸 티파니 윌리스가 범인을 향해 “아버지를 죽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정말 어렵지만, 난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붙든 티파니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국 땅 안에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에 성평등위원회 설치하라는 성평등기본조례 철폐하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통과시킨 ‘기본조례 개정안’에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2조 7000억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폐하라.”는 성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법과 조례를 통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사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중법원, 왕이 목사에게 ‘국가전복죄’, 징역 9년형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달 30일 추위(秋雨)성약교회의 왕이(王怡) 목사에게 국가전복선동죄 외에 불법경영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5만위안 몰수를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라고 하는 공산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중국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GNPNEWS]

GPM 복음과기도미디어 동역간사 모집

복음기도신문을 제작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Gospel&Prayer Media)가 2020년 동역간사를 모집한다. 복음학교를 수료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든 미디어 영역에서 진리의 빛을 들고 어둠과 싸우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디어 사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훈련과정은 1년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2월 15일까지. 문의 ☎ 070-5014-0406~8,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월 13일 ~ 1월 25일

- 1월 13일 ~ 1월 18일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 전남 담양 / 물댄동산교회(조**)010-6429-7027, 1.13.15~18(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4.17(10~12시) ▶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1.16(10~15시) ▶ 경남 창원 / 진리의 빛교회(김**)010-4011-6719, 1.17(10~14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17(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1.17(20~22시), 18(11~13시) ▶ 경기 고양 / 그루터교회(신**)010-4944-3735, 그외 5교회 진행중.

- 1월 20일 ~ 1월 25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0~24(14~17시)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20~21, 24~25(19~22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21(11~16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1~24(10~1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24~25(10~22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24(10시)~25(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그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획 | 이슬람 세계가 열린다 (1)

“급증하는 무슬림 출신 새신자를 위한 전도자가 절실하다”

철옹성 같이 닫혀 있던 이슬람 세계가 유가하락에 따른 오일시장의 위축과 난민 문제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슬람 권역을 방문,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는 선교환경의 변화를 소개한다. <편집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에 의존해 온 경제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여행비자 확대, 외국기업 유치 등으로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또 걸프 6개국 가운데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아 경제 체질 개선을 꿈꾸는 오만 역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문호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 국가들의 문호 개방에 발맞춰,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선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역시 1876년 최초의 문호 개방인 강화도 조약과 1882년 조미수호 조약을 계기로 서구사회에 대한 문이 열렸고, 그 이후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입국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중동국가의 문호 개방은 선교 사역에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과 테러 등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이 유럽과 인근 국가로 내몰려 발생하는 난민 문제로 관련 국가들이 몸살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난민들은 난민 캠프와 정착한 새로운 터전에서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될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이때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다가선 복음이 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다.

첫 기착지 이집트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2019년 12월, 겨울로 접어든 이집트의 공기는 한국의 가을처럼 선선했다.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사람은 수피즘을 신봉하던 원리주의 무슬림(이슬람 신자)인 아흐메드(가명) 형제였다. 스마트폰의 구글 통역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내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계속 살 것입니다”라고 그의 고백을 번역한 스마트폰 화면을 대하며 적잖은 감동이 일어났다. 무슬림으로 예수를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그의 삶에 어떤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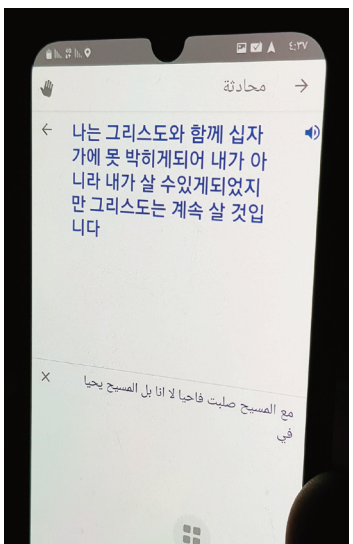


▶ 이집트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복음기도신문)

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이집트 체류 기간 중, 그를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었다(형제의 인터뷰는 다음 기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코란의 교리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수피즘을 믿는 무슬림이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교리를 강조하며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며 때로는 거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가족들은 그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무슬림의 당연한 모습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친절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려 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이슬람의 문화 때문이다. 죽을 고비도 넘겼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를 일컫는 MBB(Muslim Based Believer)가 겪는 고난은 말로 형언하기조차 어렵다. 이번 북아프리카에 이어 중동 국가 순방 여정 가운데 실제로 2014년 예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의 공격을 받아 엄마를 잃고 A국에 머물고 있는 세 자매를 만났다. 이들 세 자매의 엄마는 그해 6월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동



▶ 아흐메드 형제의 고백을 번역한 스마트폰 화면(©복음기도신문)

생과 시동생이 찾아와 꿇고 있는 기름 냄비를 들이부어서 전신 화상을 입었다.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 갔으나 며칠 만에 사망했다. 이 자매들은 엄마가 화상을 입고 고통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는 A국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 신앙훈련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이 가정에 고난이 시작된 것은 1997년 자매들의 아빠 사에드가 어느 날 기독교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면서부터였다. 컬럼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충격이었다. 학교 교사였던 그는 이슬람에서 찾지 못한 용서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과 응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슬람 세계관과는 달라보였다. 궁금했다. 도대체 어떤 교리가 있기에 용서가 가능할까? 성경을 보고 싶었다. 그러다 위성라디오를 통해 매일 한 시간씩 예멘어로 전파되는 복음 방송을 듣게 됐다. 목마른 사슴 같았던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다. 자아를 추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이웃사람들이 알아가면서 그의 개종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좋아하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에드는 2014년 아내를 잃고 고향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난 2019년 말 현재 그와 가족들은 A국에 머물고 있다.

아흐메드와 사에드 형제의 가족

을 만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이들 MBB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들을 받아서 양육하고 섬길 교회는 있을까?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외형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국가는 레반트 지역(고대의 가나안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아라비아 반도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이다. 방문지인 UAE의 경우는 특정 지역을 종교 시설로 지정, 각국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시민들은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어 종교란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슬림 출신 새신자,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요르단에서 사역해온 송유세프 선교사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란 등에서는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등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고, 개신교회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무슬림 출신 새신자를 교인으로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종을 불법화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무력행동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선교사는 “목회자들

이 드러내지 않고 이들 새신자들을 교제하며 섬기지만 이들이 기존 교회에 정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만난 B선교사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슬람 출신 새신자를 받으면 무슬림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새신자 역시 쉽게 교회에 다가가지 못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난민 현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난민 캠프에서 이주한 난민들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레바논에서 난민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는 “10여 년간 중동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 횃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난민 사역을 시작한 이후, 이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에 쫓아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나 성경관련 자료가 담긴 메모리 카드 등은 없어서 나눠주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섬길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 믿음의 증인을 세우는 일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복음을 전하고 있는 D선교사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개종한 이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슬람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관점을 바꿔 주기 위해 부단한 대화와 신앙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NPNEWS]

중동 = C.K.

난민포럼, 스마트 시대의 난민 선교를 논한다

중동 지역의 각종 내전과 분쟁으로 인해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 선교 관련자들이 모이는 제6차 에이펜 난민포럼이 ‘스마트 시대의 난민 선교’라는 주제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아랍어, 페르시아, 유럽의 약자를 뜻하는 에이펜 지역 한

인 난민 사역자 모임인 에이펜(A-PEN)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난민 사역 진단, 미디어와 IT기술을 활용한 난민 사역의 다양성, 난민 사역자들의 교류,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문의: 카톡 R2220, qingdao1009@gmail.com

기획 | 창조 이야기 (27)

흙에서 발견된 뼈들만으로는 진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교과서의 '유인원'은 거짓말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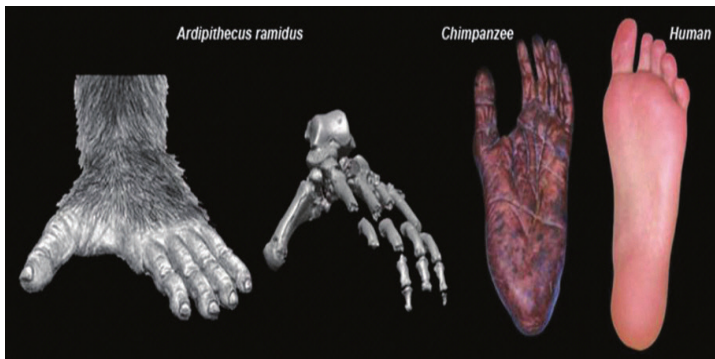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는 인간과 원숭이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생물이 화산재 위를 걷는 그림을 실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뼈는 발견된 것이 없다. 완벽한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위에 짙은 피부의 원숭이 같은 것이 걷는 그림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흑인이라면 그들이 중간체(missing link)에 항상 이렇게 진한 피부를 그려 넣는 것에 화가 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짙은 피부가 진화가 덜 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그림에는 갈라진 발가락 자국을 집어넣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원숭이 발에서 인간 발로 가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류는 엄지발가락 같은 것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것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은

'400만 년의 두 발 보행이...'라고 말하며 소위 중간체가 인간의 발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찰스 악스너(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해부학·생리학·인간생물학 교수)박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불리기도 하는 루시 연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었다. "루시의 뼈는 인간계열이 아닌 동물을 나타낸다." 중간체가 아니다. 연구팀은 컴퓨터로 뼈의 복수이형 분석을 진행했다. 똑바로 걸었던 원숭이 종류의 하나였을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루시는 아직 살아있는 동물의 하나일 수도 있다.

북경인은 수년간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사라졌다. 그러다 사람들이 부스러진 원숭이 해골들이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해골은 부스러져 있었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발견됐다. 그것을 보고 어떤 똑똑한 과학자는 "와, 이 원숭이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멍청한 소리다. 또한 그들은 같은 동굴에서 보통 사람의 해골 10개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명명됐다가 나중에 아르디피테쿠스 라마두스로 개명된 화석에서 침팬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가정한 그림. 하지만 이렇게 진화됐다는 중간체가 발견된 바 없다. (출처: creation21.or.kr 캡처)

자바인이라 불리는 호모에렉투스도 여전히 교과서에 있다. 네덜란드의 해부학자 뒤부아 박사가 중간체를 찾겠다는 의도를 갖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발견한 것이다. 그가 여러 사람을 고용해 발견한 것은 원숭이 머리뿔개뼈 하나와 인간의 치아 3개, 그리고 1년 후에 50피트(약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넓적다리뼈 하나다. 뒤부아는 이것으로 중간체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한 생명체의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동물 뼈들이 1925년에 '스콧스: 원숭이 소송'에서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유명한 해부학자 별차우는 '자바인'에 대해 "내 의견에는 이것은 동물, 즉 거대한 긴팔원숭이이고

사실상 넓적다리뼈는 머리뼈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실 뒤부아는 그가 같은 지역에서 2개의 인간 두개골을 찾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진화론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는 '오크인'이 있다. 그들이 발견한 오크인은 사실상 4개월 된 당나귀의 두개골 조각이었다. 그것을 중간체라고 하려고 했다. 또한 돌고래의 갈비뼈가 인간의 쇄골뼈로 둔갑해 오랫동안 박물관에 전시돼 있기도 했다. 2004년에 발견한 '호빗'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아마 왜소종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림에도 그 뼈의 주인은 3.5피트(약 106cm)짜리 정상인이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과서가 정확해야 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교과서는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대신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사피엔스'는 현명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 1:22)

사람의 '진화'에 대한 증거와 침팬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흙에서 뼈를 발견했다고 그게 누군가의 아버지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쥐 같은 포유동물을 '모든 포유류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발견된 뼈가 무언가의 어머니였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흙속의 화석일 뿐이고, 그 존재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새끼를 낳았는지, 자기와 다른 새끼를 낳았는지는 더욱 증명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흙에서 발견한 뼈들을 내세워 오늘날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일 즉 자기와 다른 동물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잠비 말라유, 그루터기 같은 한 자매의 회심... 복음의 길 열리길



▶ 이슬람 국가들의 학교인 '마드라사' 학생들(출처: himalmag.com 캡처)

잠비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바탕하리 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신도시, 북쪽은 구도시로 나뉜다. 북쪽에는 원주민이었던 말레이족이 거주하고 있다. 잠비는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팜유산업이 발달해 부유하다. 하지만 잠비시에 있는 말레이족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 기도다이제스트(Global Prayer Digest)는 이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다.

"잠비 말레이 사람들은 이주민들

에게 수십 년 동안 위협과 착취를 당했다고 느낀다. 이주민들은 말레이족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개혁과 근대화를 거부하는 말레이족은 그렇지 못하다. 말레이족은 오랫동안 내려온 이슬람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마을에 모스크와 예배처가 있으며,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학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전통적인 이슬람 종교의식과 예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적대적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학교나 직업 등의 사회적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독교

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말레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체면을 뜻하는 '말루(Malu)'이다. 그래서 공개 석상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줘선 안 된다. 가난과 뒤떨어진 문화를 가지고도 말레이 사람들이 이주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 전통'이다. 이들은 전통과 뿌리가 깊은 '이슬람'을 갖고 있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하지만 잘못된 전통이나 자부심은 오히려 민족을 극히 수구지향적으로 만들어 발전을 더디게 하며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한다. 최근 잠비도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식 이슬람을 버리고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전체 주(Province)가 강경 무슬림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보인다.

공립학교와 병존하고 있는 이슬람학교가 이곳에서 강경한 이슬람 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렴한 학비에 공식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는 이슬람학교가 수천 개에 이르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슬람 세력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지역 정부도 그것을 지지한다. 주께서 이들의 진격을 막으셔야 한다.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우셔서 종교적 영역에 좀 더 온건한 자들이 들어서야 한다.

수마트라에서 잠비는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 중 하나이다. 이 경제 발전과 관련해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잠비에 있는 환경자원 중 하나인 '이탄지' 지역(식물 퇴적층 지역으로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함)을 보호하고자 한국 산림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조약을 맺고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현재 잠비에서 사역하는 전도자는 현지인을 포함,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기회가 소중하

다. 현재 이 지역 교회는 다른 종족에 대한 전도가 금지돼 있다. 1년 전 5개 교회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2명이 체포되고 문을 닫았다. 또 1명의 대학생이 종교적 토론을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30년 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N자매가 회심했다. 주께서 이 자매를 잘 성장시켜 주시고 이 자매를 통해 잠비 말라유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잠비 말라유 종족은 동남아에서 큰 민족 그룹인 말라유 종족의 한 갈래로 알려져 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진실로 말씀에 붙잡혀 핏박 앞에 담대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길 기도한다. [GNPNEWS]

인도네시아 = 김매일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극심하게 목말랐던 50대의 삶... 복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복음이 실제 된 기쁨을 누리는 김혜신 권사(광교 더사랑의교회)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다. 여기 '59년생 김지영'이 있다. 순종적인 아내, 착한 며느리, 성실한 엄마로 살아내려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몇 십 년의 세월. 결국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순종'과 '착함'의 한계에 부딪혀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82년생 김지영'이 페미니즘과 자아를 추구하며 불완전한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김혜신 권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

없었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죠. 저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어요. 1년여 남편과 씨름하다 2009년 약국을 담은 후 6년 정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아온 저에게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수 없는 한계

- 약국을 담은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목사님도 만나고 집회도 가보고 무언가 배워도 보고... 내 세계를 살아보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진정한 자유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투자하는 거라고들 했죠. 이제 웃도 좀 사입고 운동도 하고 나 자신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자아를 찾는 것

음학교에 다녀와서 권한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던 친구가 복음학교를 다녀온 이후 변화한 모습을 봤어요. 목마름으로 인터넷을 찾아 원서를 쓰고 2015년 9월 복음학교에 갔어요. 삶의 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였고, 복음이 뭔지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총체적 복음을 듣고, 처음엔 뭔가 충격적인 느낌만 있었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들었죠. 복음학교 이후 바로 기도학교, 선교관학교를 등록하고 매주 조금씩 진리가 알아지면서 주님이 하나씩 제 내면을 깨뜨려 가셨어요.”

-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열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시

해 주셨어요.”

복음의 삶은 애매한 것이 아니었다

- 이후에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는지요?

“기도학교의 말씀기도모임에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던 기도와 너무 달랐어요. 은혜는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막상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하는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계속하고, 9학기를 연속 섬기면서 오만, 이집트, 파키스탄 등 아웃리치를 5번 갔어요. 해외에서 열리는 복음캠프도 섬기고요.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그런 훈련과정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전에 정말 영혼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했어요. 설교를 들으면 알겠는데, 말은 화려한데, 그 걸 삶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니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었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제와 나눔, 훈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을 맡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정말 그렇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아니, 알긴 알았는데 지금은 이전에 알았던 그 앞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기 전에도 제자훈련을 받고 일 년에 성경을 4~5독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복음 앞에 선 이후였어요. 그 전에는 교리로,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진짜 앞이 아니니까 살아지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안 되는 나를 수치심에 감추고,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나는 뭘 고쳐야 하지?' 그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을 복음 앞에서 인정해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존재니까 본질상 죄인이고,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전에 살아오던 '율법주의'와 지금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은 보이는 모양은 같을지라도 분명한 변화가 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게 정말 자유함이에요.”

- 구체적인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복음학교를 마친 직후 기도학교에 다닐 때 한 병원에서 약사 명의만 걸어놓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불법인 것을 깨달아 거절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하셨어요. 또 섬기는 교회에서 지난 여름부터 북한 선교부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웃리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도 못하면서 뭔가 이끌고 싶고 통솔하고 싶은 마음을 비취주셨어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부터 팀이 나누어지는 것까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 공로로 삼으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믿으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임에서 실제 되어야 하는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정말 절망이었고,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셨어요.”

지식과 교리를 넘어 진짜 앞으로

- 가족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정말 복음 앞에 계속 반응하고 변하더군요. 남

(6면에 계속)

-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대구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4살 이른 나이에 선 본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서울 생활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댁 어른들을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고, 어떻게 남편을 대하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죠. 보고 배운 것은 친정엄마의 청교도적인 삶이었어요. 엄마는 둘째 며느리인데도 큰 며느리 역할을 다 하셨고, 우리에게 알뜰하게 먹이고 입혀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웃에게 줄 정도로 열심이 특성이셨어요.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웠지만 나도 저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 그건 믿음이 아닌 율법의 삶이었어요. 약국을 하며 두 아들을 낳고,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나는 없는 삶이었죠. 어느 순간 숨이 막히면서 50대 초반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 어떤 목마름이었나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약국에 갇혀 짝짝 못하는 삶,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삶을 멈추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50세 되던 해, 약국을 접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모실 수 없었어요. 형님들과 시누이가 세 분이나 계셨지만 막내인 저희가 30년을 모시면서 나의 열심과 최선의 삶에 한계가 온 거죠. 언제나 '네'밖에 할 줄 모르던 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자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도, 시댁식구들도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모두 제 탓을 하며 제가 문제라고 했어요. 저를 이해할 수



▶ 말씀과 기도카드,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한 김혜신 권사의 책상(© 복음기도신문)

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2014년 관상동맥 우회술(심폐바이패스를 사용하는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인 남편이 수술을 받고 1년 후 정기검사를 했는데 중요 혈관이 막힌 게 확인됐어요. 수술이 실패한 거죠. 언제든지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듣고 남편의 죽음이 임박하자 두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결국 나는 남편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즈음 주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삶의 터를 완전히 허물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경기도 광교로 이사하게 하셨어요. 살림도 정리하고, 교회도 옮기시고, 저를 복음 앞에 세우셨어요.”

- 어떻게 복음 앞에 서셨나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약사가 복

어머니께도 친정 엄마처럼 정말 그렇게 잘 해드렸다고 자부했는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남편도 시댁식구들도 용서가 안 되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복음학교에서 들은 '죄 곧 나, 나 곧 죄'라는 것,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내가 복음이 진짜 필요한 자이구나, 십자가를 너무 쉽게 그냥 넘겨 버렸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첫 해외 아웃리치를 가기 전 어머니와 남편, 시댁식구들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며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복음 앞에 서니 모두 내 탓이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일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정리가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



▶ 남편과 함께(제공: 김혜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믿음으로 사는 복음 (1)

“복음의 삶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다고 이곳저곳 방향해야 할까. 아니다. 새벽은 해 뜨는 동편에서만 열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 6:3)

호세아 선지자는 비명처럼 외친다. 생명을 얻는 길은 해가 동편에서 떠오르듯 오직 한 길 뿐이다. 역사의 암울한 시기마다 시대를 일깨우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를 만날 때에 그를 부르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운명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



일러스트=노주나

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다. 그렇듯 육의 사람은 세상의 떡과 포도주로 살지만 영에 속한 하늘 백성은 오직 믿

음으로 산다. 이 혼돈하고 소망 없는 역사에 들려줄 마지막 대답. ‘다시 복음 앞에!’ 야곱에게 돌아갈 뻔엘이 있고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듯이 방황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

한 해답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자 역사의 통치자시며 의의 왕, 생명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다윗은 반들에서 양을 치던 열여섯 살 소년 목동에 불과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 채 10년을 넘게 쫓겨 다녔다. 그러는 동안 부모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

었다. 친구 하나도 그의 곁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그가 겪는 일생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다윗은 매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격렬한 세상 현장 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모든 환난 중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 일생에 여호와야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의 삶을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했다. 이것은 다윗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의 비밀이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믿음이면 충분하다. (2017년 9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오라!
와서 배우라!
열방 향해 나아가라!

"We proclaim h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Colossians 1:28)

www.hufm.or.kr

문의 및 접수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3길 8 :ADDRESS
010-4031-0700 :PHONE
hufm@hanmail.net :MAIL

H.U.F.M
헤브론선교대학교
2020학년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름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대상자 (단, 예외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입학설명회

1차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2차 :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3차 : 2020년 01월 09일(목) 오전 10시
*장소 : 헤브론선교대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입학원서 전형료 7만원
- *2020년 1월 10일(화)~28일(토)(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입학전형 일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담일시	최종 합격자 발표	입학식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020년 2월 3일~5일	2020년 2월 7일	2020년 3월 10일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으로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편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 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는 고백도 하고요. 저도 이전에는 교과서적으로 남편에게 잘했던 아내였다면, 요즘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남편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말하면 난 무조건 OK야.”라고 해요. 남편에게 실제로 순종하는 관계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제니까요.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도 저는 순종밖에 없었으니 싸운 적이 없었지만, 모습은 그때와 지금이 같을지라도 지금이 진짜예요. 오랫동안 시어머님을 모셨고 결혼 초에도 남편이 군의관이어서 신혼이 없었다는 섭섭함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신혼을 사는 것 같아요.”

-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어려운 속 얘기를 잘 안하는 남편이 교회 구역모임에서 자신의 병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병이 남편

에게 그토록 큰 두려움과 절망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새벽기도를 가며 주님 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바이패스’(심폐바이패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남편을 갑자기 데려가면 하나님이 나의 바이패스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남편과의 관계가 또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하죠. 거기까지 이루어 주시길 기도해요. 또 두 아들의 가정과 남편, 온 가족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안다고 말은 했지만 살지는 못하면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진짜 가족들이 복음으로 달리는 걸 보고 싶어요.” [GNPNEWS]

E.J.

▶교회의 북한선교부(제공: 김혜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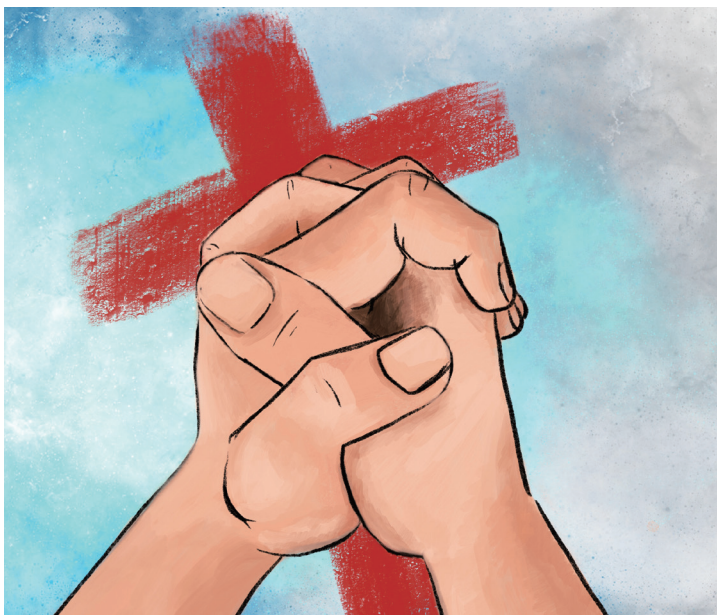
모든 유대인이 진멸될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께 아뢰라는 모르드개의 청에 에스더의 첫 번째 답은 ‘노(No)’였다. 자신이 먼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에스더가 왕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모르드개의 말은 에스더의 가려진 눈과 마음을 열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명을 깨닫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중보자의 위치에 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행함이다.

신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내게 굵직굵직한 하만의 공격과 같은 일들이 닥쳐왔다. 엄마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러 오라고 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당장 새벽이라도 떠나야겠다 생각하며 정신없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꿘었다.

주님은 ‘엄마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사명의 길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려웠지만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 응급실로 들어가셨다는 급한 소식이 왔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죽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저런 공격은 끊임이 없었다. 정신 없이 불어닥친 위기 가운데 지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결된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었다. ‘기도했는데 들으셨겠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야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점점 기대보다는 체념하는 마음이 커져 갔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엄청난 위기 앞에서 나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모르드개



일러스트=고은선

앞에서 반응한 에스더처럼 난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엎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아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또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발견했다. 또한 어려운 일을 겪으며 각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행치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그랬던 내 모습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있었던 것

처럼, 복음학교, 말씀기도, 목상모임, 기도모임 등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사 가려진 눈과 마음을 주님이 열어 주셨다.

내 방법과 뜻을 품고 타협하며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나의 태도를 돌이키기로 결단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에스더와 같은 중보기도자로 설 것을 결단하며 기도한다! [GNPNEWS]

김준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北, 통신의 자유 가져온 대포폰 단속 강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에서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이른바 ‘대포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대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 실명제 도입으로 먼저 시작된 것은 철저한 1인 1대의 원칙이다.



▶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쇼핑하는 모습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휴대전화 실명제 도입으로 철저한 1인 1대 원칙

북한에서는 지방을 커버하는 ‘강성넷’과 평양 중심의 ‘고려링크’, 2개의 전화망이 있다. 상용(商用)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2, 3개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에 1인 1대 원칙이 철저해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어도 수속이 귀찮아졌기 때문에 좀처럼 승인받기 힘들게 됐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대포폰’의 근절이다. 북한이 이동통신을 본격 도입한 것은 2008년 12월이다. 이후 급속히 가입자가 늘었다. 현재 사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었다.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된 것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쌀을 대가로 휴대폰을 등록시킨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휴대폰 구입부터 체신소(전화국)에 등록까지 맡아서 하는, ‘거간꾼’으로 불리는 암거래업자도 각지에 생겨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른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출처: 뉴데일리 캡처)

통신원은 “대포폰을 사용한 각성제 매매, 중국과 밀수, 기타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위국(비밀경찰)이 나서서 직접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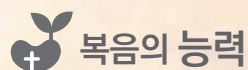
대포폰 끼리 정치비판 가능

북한에서는 ‘통화는 도청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당국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하기도 한다. 비공개 말하면 ‘대포폰’이 늘어나면서 북한 국내에서 ‘통신의 자유’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대포폰’끼리 정치 비판을 하거나 김정은을

힘담해도 통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바로 체신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즉시 보위국에 통보된다. 분실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 처리된다. 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체신소가 바로 등록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거리 검문소에서 주민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거나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휴대전화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GNPNEWS]



세례, 죽음과 부활의 증거

참된 기독교는 ‘나’와 ‘나 자신’과 ‘나를’ 이 사이에 얽매어 있는 자아 중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영은 단호한 태도와 최종적인 파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신다. ‘이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세례는 이기적이고 어그러진 인간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상징한다. 성도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 의미이다. 결혼반지가 결혼을 증거하고 상징하듯이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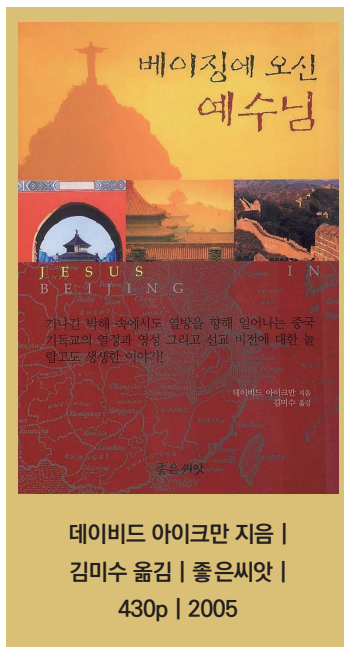
<내 자아를 버려라(2008), A.W. 토저>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데이비드 아이크만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

“어려움 아래서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중국 지하신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그들은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였음에도 모든 창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다.

게다가 찬송가도 없이 모든 찬송을 외워서 불렀다. 정부의 박해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은 정부에 발각되어 폐쇄됐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 기독교에 대한 기억이다.

중국 기독교에 대한 기억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에 등장하는 중국은 이 기억에 대한 확장이며 확증이었고 살아 숨쉬는 간증이었다.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오신 예수님은 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유물론을 뒤집어 일으키는 예수님이 아니셨다. 그분은 용납과 긍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중국만의 독특한 환경 가운데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지하교회의 기묘한 동거와 교회의 성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였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한지

대외적인 눈가림용으로 만들어 놓은 삼자교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먼저는 밀알로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서구 선교사들의 헌신의 터에서 중국의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전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중국교회를 향한 잔인하고 끊임없는 박해,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결코 빼가지 않았다.

끊임없는 박해 속에 놀라운 성장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히 11:36-38)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 하나님은 중국에 이런 증인들을 세워 두고 계셨다.

세상이 감당 못할 증인

중국이라는 대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재편되는 생생한 현상이 중국교회의 현주소였다. 큰 단위를 이루고 생성된 중국교회 안 여러 연합의 불일치와 반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법을 아는 지혜로 행했다. 진리 아닌 것과 진리를 분별하고 다시 조율하여 일치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지혜를 보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성경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

중국 학생 지도자이자 현재 목사인 장보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너무 개방되면 좋지 않다. 어려움 아래서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 모든 게 완전히 개방되는 날에는 타락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

마치 한국교회와 다 무너져 힘을 잃은 서구 교회를 향한 말처럼 느껴져 부끄러웠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중국의 교회를 일으키고 계셨다. 중국교회의 부흥은 결국 타락하고 배부르며,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 중국교회인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이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다섯 아이의 엄마...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키우셨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며 걷게 된 선교사의 삶,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이 결음이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남편은 결혼 전 아이는 다섯은 낳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아멘’하였다.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니 낳고, 낳고, 낳고...의 역사이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생명사역자로 세우시고 다섯 아이를 주셨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한다. 아이에게 두 시간마다 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안 것도 아이를 낳고 퇴원교육을 받을 때였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첫째 아이는 참 활동적이라 걷기 시작하면서는 눈을 땔 수 없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이를 눈동자처럼 살피느라 예배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늘 아이를 쫓아다녔다. 식사시간에는 동료 선교사의 국에 양말을 넣기도 하고, 컵으로 또래아이의 이마를 쳐서 피가 나게도 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왜 이리 힘이 드는지...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다짐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



일러스트=이수진

사한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둘째를 기다리는 나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둘째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든 시작과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죄 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던 둘째를 허락하셨고, 셋째, 넷째를 허락하셨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갔고, 큰 아이들의 돌봄도 필요했기에 넷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언제까지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는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즈음 말씀

기도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하셨다.

아이 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아이를 낳고 낳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는 단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정에 다섯째를 허락하셨다.

셋만 데리고 병원에 가도 여기저기서 엄마가 힘들겠다며 입을 모은다. 위에 둘 더 있다 말하면 깜짝 놀란다.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 엄

“

나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고 싶다

”

마였던 나는 어느덧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렇다고 지금 베테랑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바보가 되었을 뿐이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키우고 계신다. 나를 양육하시는 주님은 내가 자녀에게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는 아비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하기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고 싶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한 자로 주님만 기다리는 교회로 선다.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GNPNEWS]

이지향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12. 19 ~ 12. 31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애심 김정대 김혜신 단현철 박숙자 박승은 오성애 윤경석 이은주 장근혜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재순 차정규 황지환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반석중앙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양광감리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천보산기독교원 행복한우리교회 GNA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